

보도시점

2023. 12. 21.(목)

본회의 의결 시

배포

2023. 12. 21.(목)

본회의 시작 시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을 확대하여 '23년(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순증
- 국회 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등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18조 3,330억원) 대비 62억원 순증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 최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⑥노후 수리 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①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②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용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③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④그린바이오 소재 생산 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반면, 집행이 부진 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되었다.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
 2. 국회 심의단계 증액 주요내용
 3.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131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문원탁 (044-201-1321) 박천복 (044-201-1324)



①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는 한편,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개편(7개 품목, 25억원 → 10개 품목, 81억원)한다.

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90억원)하고, 지역·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확대(99억원 → 168억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126억원)하고, 은퇴형 농지연금(신규, 227억원) 및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신규, 396억원)하여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및 난방용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비료 288억원, 면세유 70억원)하는 한편,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연 1.8%)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을 확대(499억원 → 653억원)한다.

②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으로 수급이 불안한 밥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 → 130개소, 95억원)을 통해가루쌀 재배면적을 2천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15개소 → 28개소, 45억원)하고,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융자 250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밀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비축물량을 늘리고(2만톤 → 2.5만 톤, 307억원), 계약재배를 확대(8천톤 → 10천 톤, 94억원)한다. 콩은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확대(146개소, 23억원 → 190개소, 29억원)하는 한편 수매단가를 인상(4,489원/kg, 1,234억원 → 4,667원, 1,283억원)한다. 아울러, 국산 밀·콩에 대해서도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신규 22개소, 33억원).

밥쌀 생산량 감축 및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1,121억원 → 1,865억원)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인상(100만원/ha → 200만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해 밥쌀용벼 재배면적 감축(28천h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하계작물 재배면적 : (논콩) 18천ha → 22천ha, (가루쌀) 2천ha → 10천ha, (하계조사료) 7천ha → 9천ha, (옥수수) 신규 4천ha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량 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새로 추진한다(10억원).

③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농지·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4천 명, 551억원 → 5천 명, 957억원)하고,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물량을 대폭 확대(1,875ha → 2,500ha, 1조 700억원)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3년보다 2배 확대(20ha, 82억원 → 40ha, 171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대폭 확대(4개소, 48억원 → 8개소, 152억원)한다.

④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3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9.8ha 추가, 59억원)를 확충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20ha 내외/개소)를 구축(300억원)해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12개소, 60억원)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200억원(정부재정 120억원, 민간자본 8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한,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선별·검증하는 첨단분석장비를 구축(2개소, 50억원/총사업비 198억원)하고, 그린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신규로 구축(1개소, 2억원)한다.

5 재해지원 확대 및 재해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농작물 70개 품목, 4,686억원 → 73개, 5,126억원). 또한,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2,000억원 → 2,800억원) 하였다.

금년 홍수 피해지역에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5년에서 '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148억원을 추가 반영(492억원 → 640억원)했으며, 사업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2,655억원 → 3,718억원)

* 충북 음성(대소), 청주(옥산), 충남 공주(쌍신), 경북 성주(수륜)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신규로 추진한다.(198억원)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0.3만m³ → 4.3만m³, 430억원)하여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신규, 11억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5,548억원 → 6,132억원)하고, 재해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우선순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중심 투자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을 위해 지역단위로 홍수·가뭄 위험도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신규 40억원)한다.

◇ 전 세계적 고물가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 경영 및 민생안정 필요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육성 예산 등 반영

① 농업인 경영안전망 강화 +618억 원

- (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원 반영
-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 70억원 증액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 경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13억원 증액(이차보전, 융자규모 550억원)
- (가축백신지원) 렴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및 중소규모 농가 접종지원 예산 157억원 추가 반영
- (농업 SOC) 가뭄 등 농업재해 피해가 빈번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7억원 추가 반영

②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40억 원

-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예산 5억원 증액
 - * 천원의 아침밥 지원기간 7개월 → 8개월로 확대
- (청년창업농 장학금) 청년창업농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 14억원 추가 반영(720명 → 860명)

- **(외식업체육성자금)**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통한 외식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원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1.7억원 반영**(이차보전, 용자규모 150억원)
- **(농산물 수급지원)**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 창고 구축을 위해 **5억원 추가 반영**(총사업비 252억원)

③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42억 원

- **(스마트농업)** ①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추가 조성비 **28억원** 및 ②관학협력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한 보육센터 구축비 **42억원 추가 반영**
- **(그린바이오)** ①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 1개소 구축비 **25억원**, ②소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설계비 **2억원**, ③그린바이오 창업보육을 위한 벤처캠퍼스 1개소 신규 구축비 **7억원 증액**
- **(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소재의 기술개발·인증평가·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비 **4억원 반영**
- **(축산실습교육센터)** 탄소중립·스마트축산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 ICT 축산실습교육센터 설계비 **3억원 신규 반영**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현장 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설계비 **9억원 반영**

④ 기타 농정과제 이행 등 +88억 원

- **(도축장 증축)** 대구 내 도축장 폐쇄('24.3월)에 따라 경북지역 양돈농가의 모돈 등 비규격돈 원활한 출하를 위한 도축시설 증축비 **30억원 반영**
- **(김치원료공급단지)** 중소 김치업체 대상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원료공급단지 1개소 구축예산 **5억원 반영**(총사업비 290억원)
- **(향토음식진흥센터)**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담은 향토음식의 체계적 연구·발전을 위한 전담연구시설 구축예산 **5억원 반영**

2024년 농식품부 예산

활기찬 농촌,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24년도 예산 | 18조 3,392억 원 확정 (전년대비 5.7% ↑)



농업직불제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 ✓ **기본형 공익직불** 25,805억 원 → 26,335억 원
 - 소농직불 지급액 10만 원 인상 120만 원 → 130만 원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90억 원
 - 논물관리 등 탄소감축활동에 직불금 지급
- ✓ **경영이양 은퇴직불군** 215억 원 → 928억 원
 - 은퇴직불 3,000ha 규모로 신규 도입 (126억 원)
 - 은퇴형 농지연금 (227억 원)
 - 은퇴직불 연계 임대료 지원 (396억 원)
- ✓ **가축 백신 지원** 499억 원 → 653억 원
 - 렘피스킨 예방 백신 및 접종시설비 지원(신규)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 **무기질 비료 가격 및 수급 안정** 288억 원
 -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지원
-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0억 원
 -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50% 지원
- ✓ **농촌고용인력지원** 127억 원 → 219억 원
 -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센터 확대
19개소 → 70개소
- ✓ **인삼산업지원** 20억 원
 - 인삼계열화 구매자금 300억 원 확대
 - 수삼경매제도 도입 연구용역비(신규)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3,703억 원 → 4,535억 원
 - 침수위험지역 배수시설 조기준공
- ✓ **저수지 준설** 30억 원 → 430억 원
 - 저수지 퇴적물 제거로 물그릇을 키워 홍수 예방
30만 톤 → 430만 톤
- ✓ **노후 배수장 성능개선** **신규** 198억 원
 -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개선 추진
- ✓ **농작물재해보험** 4,686억 원 → 5,126억 원
 -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70개 품목 → 73개 품목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551억 원 → 957억 원
 - 청년농업인 선발인원 확대 4000명 → 5000명
 - 청년창업농장학금 확대 720명 → 860명
- ✓ **비축농지 공공임대** 8,577억 원 → 1조 700억 원
 -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2,500ha)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
- ✓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신규** 300억 원
 - 비축농지에 스마트 온실 설치 (12개소)
 - 청년농에게 최대 20년 장기임대
- ✓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50억 원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2개소)
 - 유용미생물 등 조기 발견·산업화 지원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 ✓ **전략작물직불제** 1,121억 원 → 1,864억 원
 - 가루쌀·논콩 지급단가 인상
(100만 원/ha → 200만 원)
 - 대상면적 확대
127천 ha → 157천 ha
- ✓ **전략작물산업화** 363억 원 → 453억 원
 - 가루쌀 밀·콩 전문생산단지 육성 확대
 - 전략작물 제품개발·판로확보 지원
- ✓ **정부양곡매입비** 1조 4,077억 원 → 1조 7,124억 원
 - 매입량 40만 톤 → 45만 톤
 - 매입단가 20만 원 / 80kg 수준으로 책정



수출 및 ODA 확대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75억 원 → 946억 원
 -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 (328억 원)
 - 수출 통합·전문조직 육성 (268억 원)
- ✓ **농산업수출활성화** 45억 원 → 60억 원
 - 스마트팜 및 농기계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
- ✓ **쌀 해외원조** 519억 원 → 1,120억 원
 - WFP 쌀 해외원조
5만 톤 → 10만 톤
- ✓ **K-라이스벨트** 5억 원 → 123억 원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 대상
다수확 벼 품종 보급 등